

에너지 자립 기반 확충 탄력

진안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 선정 국비 9억원 확보

진안군은 산업융합지원부가 주관하는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9억여 원을 확보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은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에너지원 설비를 특정 지역의 주택·공공·산업 건물 등에 설치해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군은 국비 9억1,500만 원 및 군비 19

억6,400여만 원, 자부담 6억1000여만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34억8,900여만 원을 투자해 융복합 지원사업 대상 지역 5개 면(백운면·마령면·성수면·부귀면·동향면) 일원에 총 367개소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을 추진하며 이는 일반주택 태양광(3kW) 307개소, 건물(100kW 이하) 17개소, 진안시장(30kW) 1개소, 주민수익형(9kW) 1개소, 일반주택 지열(17.5㎡ 이하) 41개소이다.

이는 에너지 자립 기반 확충 및 온

실가스 감축을 통한 친환경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참여기업인 (유)우경에너지 등 4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내년 초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으로 진안군민의 전기요금 절감효과 및 에너지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인구소멸 TF팀 별도 운영하며 좋은 정책 개발해야”

무주군의회 오광석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추진계획 내실 기해야”

무주군의회 제 30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오광석 위원은 무주군의 인구소멸 대응과 청년정책을 맡은 팀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별도의 대응팀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오광석 위원은 지난 23일 열린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주군의 최대과제는 인구소멸이며 이 문제를 청년정책팀에서 소관하고 있다. 그런데 팀장을 포함해 3명의 직원이 이 문제를 다 맡을 수는 없다”며 “인구소멸 TF팀을 별도로 운영하며 좋은 정책을 개발



해야 인구소멸 대응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광석 위원은 무주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C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인구소멸대응기금 추진 목적과 과정, 계획 모두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인구간소지역 대응계획 수립영역을 진행한 결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최하위인 C등급으로 작년보다 낮았다. 게다가 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제출 전 의회와 소통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제출 담임에 통보형식으로 의회에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자해 태권도원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겠다는 무주군의 계획에 대해서는 지역축박업

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사업 준비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오광석 위원은 이어 무주군과 전북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청년정책이 사업대상자인 청년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참여도가 낮다고 지적하고 부진사유를 분석해 원활히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오광석 위원은 “올해 무주군의 청년인구가 작년 대비 170명 줄었다. 청년정책과 사업이 활성화되고 성과로 이어지면 무주를 떠나는 청년이 줄어들 것이다. 저조한 사업은 과감히 버리고 잘 되는 사업은 더욱 투자해야 한다.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성과평가를 통해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며 청년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작가컴퍼니, 웹소설 콘텐츠 거점조성 위한 민·관 공동대응 실천협약

장수군이 지역소멸 대응방안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웹소설 콘텐츠 거점조성 사업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최훈식 장수군수는 (주)작가컴퍼니 최준은 대표와 웹소설 콘텐츠 거점조성을 위한 민·관공동대응 실천협약을 체결했다.

“웹소설 콘텐츠 거점 조성 사업”은 국가적으로 인구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 간 인구불균형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층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가 부족한 장수군에 디지털 콘텐츠를 접목해 청년들이 매력을 느끼고 찾아올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구감소 및 지방



소멸에 공동 대응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되며, 장수군 인구 위기 극복과 지역 발전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베트남 수출길 넓힌다

베트남 현지 수입업체·국내 수출업체 간담회 가져 복숭아·포도·사과 등 반딧불농산물 수출 확대 모색

베트남의 농산물 수입업체 안민(An Minh)사 타이(Thai)대표 일행과 농업회사 법인 (주)에버굿(무역업체) 김나정 이사 등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무주군을 찾았다.

농협중앙회 전북본부(본부장 김영일)이 주선해 진행된 이날 방문은 무주반딧불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황인홍 군수는 무주군청에서 이들을 만나 베트남에 수출 중인 복숭아와 포도, 사과 물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 양시춘 대표와 농협경제지주 전북본부 안전유 단장 등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베트남 안민사 타이 대표는 “무주산 사과와 포도, 복숭아 모두 베트남 현지에서는 최고 상품으로 꼽힌다”며 “맛과 품질 모든 면에서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에는 무주산지유센터에서 방문해 사인머스켓 선별작업 과정을 견학·시식하는 등 무주를 둘러봤다.

/무주=전문선 기자

황인홍 군수는 “무주가 고랭지라 과일의 당도와 과육이 남다른데다 농업회사 법인 (주)에버굿(무역업체) 김나정 이사 등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무주군을 찾았다.”

농협중앙회 전북본부(본부장 김영일)이 주선해 진행된 이날 방문은 무주반딧불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황인홍 군수는 무주군청에서 이들을 만나 베트남에 수출 중인 복숭아와 포도, 사과 물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 양시춘 대표와 농협경제지주 전북본부 안전유 단장 등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베트남 안민사 타이 대표는 “무주산 사과와 포도, 복숭아 모두 베트남 현지에서는 최고 상품으로 꼽힌다”며 “맛과 품질 모든 면에서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에는 무주산지유센터에서 방문해 사인머스켓 선별작업 과정을 견학·시식하는 등 무주를 둘러봤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고원 지방정원 조성 전문가 포럼 12월 1일 개최

진안군은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부터 군청 강당에서 지방정원 조성방향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진안고원 지방정원 조성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남수환 실장의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의 현황’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송명준 경기도 양평 세미원 대표이사가 ‘세미원의 조성, 운영 및 관리 사례’, 전북대 생태조경디자인학과 최영은 교수가 ‘진안군 환경특색을 고려한

지방정원 조성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전문가 토론과 참석자 질의답변을 실시한다.

진안군은 성공적인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연구분석과 토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하여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실행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는 진안고원 지방정원 조성에 관심 있는 군민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겨울철 한파 대비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무주군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관내 독거노인과 만성질환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2024. 3. 15.)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무주군보건의료원 방문 건강관리 전문인력과 읍·면 간호사, 보건진료소장 등 18명이 가정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한파에 대비한 실내·외 예방수칙과 한랭질환 증상 시 119 신고 및 행동요령 등을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홍찬표 원장은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저체온증이나 동상, 침수병, 동창 등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을 말한다”며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가벼운 운동과 적절한 수분 섭취, 고른 영양 섭취, 실내 환기, 보온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외출 시 모자와 장갑, 목도리 등을 꼭 착용할 것과 가급적 야외운동 및 레저 활동 자제, 응급상황 시에는 119에 신고 등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정책제안 보고회 가져

진안군은 지난 23일 군청 상공실에서 전춘성 군수 주재로 '2023 정책제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군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방안 제시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월~9월까지 약 5주에 걸쳐 진안군청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총 266건의 제안이 제시됐으며 그 중 1차, 2차 예비심사 및 부서 검토의견을 받아 총 20건의 제안이 최종선정되고, 23일에는 제안자가 제안에 대한 세부내용 등에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책제안 보고회에서는 관내에 산재한 산림치유시설을 활용한 사업개발과 어린이 전용 산림 레포츠 시설 구축, 초고령화 사회 특성을 반영한 노인친화형 공동(임대)주택 건립, 부귀메타세쿼이아길 관광자원화 등 의미 있는 제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관광객을 유치하여 생활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제안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안들도 다수 보고되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장수군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2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이전·말소·폐차한 경우 △중합소득세 등 국제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된 경우 △납세자가 세액을 착오로 신고·납부하는 등의 경우 주로 발생한다.

장수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692건, 1660만원 정도로 집계됐으며, 이 중 5만원 이하 미환급금이 636건, 전체 미환급금의 92%를 차지했다.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군청 방문없이 장수군청 재무과로 전화 신청(063-350-2237)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환급금 간단 조회'를 이용해 간편하게 조회 및 환급신청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